

Style 1 조선일보

SEPTEMBER 2020
vol.210



TOD'S
MADE IN ITALY



the saddler's spirit

WHAT MOVES YOU, MAKES YOU

내가 정한 삶의 방향이 나를 만든다.
영화배우 태런 에저튼과 그의 몽블랑 M-Gram 4810 백팩



MONTBLA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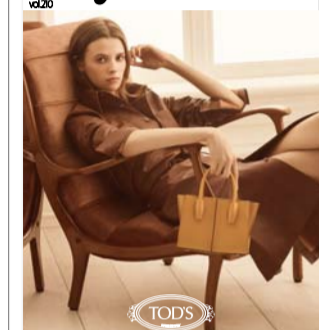


12



17

Style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토즈(Tods)의 2020 프리폴(pre-fall) 컬렉션은 소심함이 아첨하고 클래식하다.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발테로 기아포니(Walter Chippioni)가 장인 정신에 뿌리를 두고 관능적인 무드를 입혀 완성한 대체로운 컬러의 홀리(holy) 백, 아이코닉한 T 로고로 장식한 T 타일리스 라인의 백과 슈즈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38-6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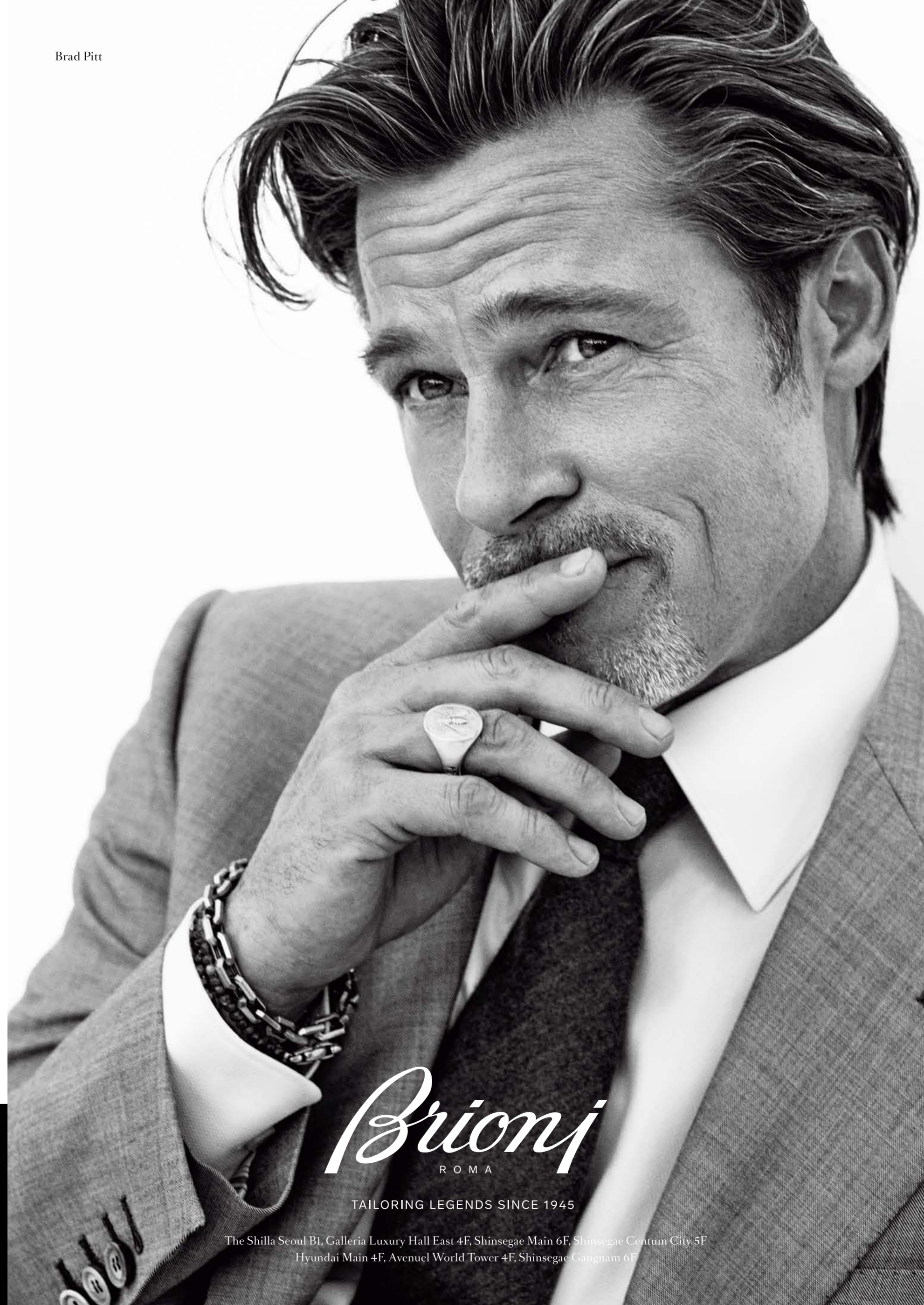


20



10

Brad Pitt



10 **SELECTION** 강연 체크에서 글렌 체크까지! 가을에 더욱 빛을 발하는 크고 작은 체크 아이템.

12 **그럼에도 찾아온 비엔날레의 계절** 코로나19는 문화 예술계 칼바람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승부수를 띄우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행사가 취소·연기되면서 일정 자체가 뒤죽박죽이다. 예컨대 베니스비엔날레는 전통적으로 짝수 해에 건축전, 홀수 해에 미술전을 열지만, 올해 행사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 우리나라 미술계도 비슷한 처지다. 짝수 해에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굵직한 행사들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하지만 팬데믹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곳곳이 갈 길은 가겠다는 시계가 눈에 띈다. 야외 전시 위주인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가 지난해 말 막을 올렸고, 여수, 부산, 대전, 창원 등의 도시들이 자마다의 방식으로 뒤를 잇고 있다. 과연 위기는 새로운 발상, 그리고 기회를 찾아볼까?

14 **RUBY LADY** 중세에 힘과 권위를 상징하며 유럽 궁중 화가들이 그린 왕이나 왕족의 초상화에 공식처럼 등장했던 루비. 가을에 어울리는 유색 보석, 레드 루비를 담은 주얼리들.

16 **WATCH ME PLAY** 시계를 즐기는 세대로,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보다 젊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찾는 이들을 위해 준비한 워치 컬렉션.

17 **미래의 비스포크** 슈트와 비스포크가 위기를 맞고 있다. 다가를 사하는 더 이상 패션에서 장인 정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듯 보인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런던 사발로 양복점들의 몰락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할 패션과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18 **2020 F/W MENSWEAR TREND REPORT** 고급스러운 소재와 세련된 컬러로 무장한 슈트 스타일이 남성 트렌드의 핵심. 한동안 지속되던 애플레저 룩의 강세는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쿨하고 시크한 애틀루트의 여운은 여전히 짙게 남은 듯하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고전적인 이탈리아 테일러링과 자유분방한 유스(youth) 컬처의 앙상블.

20 **NEW DANDY** 강인함보다는 감수성으로 다가오는, 드라마틱한 2020 F/W 남자들의 뉴욕.

28 **#STAYHOME** 실용성과 위생, 그리고 청결은 필수 가계에 맞스러움까지 장착한 뉴노멀 시대 뉴 가전 리스트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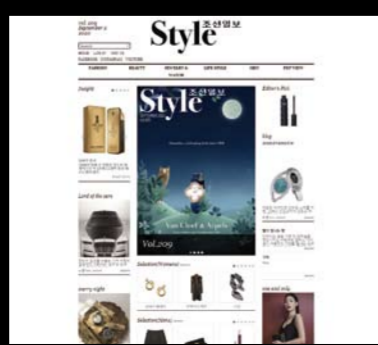
29 **SKIN PERFECTOR** 가볍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 날씨의 변화와 함께 이에 맞춘 새로운 포플러의 쿠션 파운데이션을 찾고 있다면, 지금 소개하는 브랜드의 뉴 & 베스트 쿠션 파운데이션을 만나볼 것.

30 **EDITOR'S PICK** 부드러운 컬러와 포근한 텍스처, 그리고 가을의 향을 담은 이말의 부티 아이템.

Style **조선일보** Issue.210 September 2020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장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컬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까이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을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주세요. 시오, stylechosun.com

Brioni
ROMA

TAILORING LEGENDS SINCE 1945

The Shilla Seoul B1, Galleria Luxury Hall East 4F, Shinsegae Main 6F, Shinsegae Centum City 5F, Hyundai Main 4F, Avenuel World Tower 4F, Shinsegae Gangnam 6F



M_Gram 4810

가족의 명가 몽블랑의 트렌디한 레더 컬렉션 'M_Gram 4810'에 주목해보자. 브랜드의 이니셜 M을 컨템퍼러리하게 재해석한 새로운 패턴을 입혀 백팩뿐 아니라 벨트 백, 도큐먼트 케이스, 파우치, 더블 백 등 다양하게 적용해 다채로운 카테고리 구성했다. 스크래치에 강한 PVC 코팅으로 마감한 캔버스 천으로 실용적인 면모도 돋보인다. 벨트 백 76만원대, 문의 1670-4810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DEAR and NEAR

가볍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다른 네크리스와 레이어링해도 어색하지 않을 데일리 네크리스 셋. (왼쪽부터) **다이아니 벨 에포크** 0.18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네크리스 2백90만원대, 문의 02-3213-2141 **비올라리프 아멜 프라블 랜던** 라지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신들바람에 춤추는 꽃처럼 입체적인 디자인이 특징. 6백만원대, **타파니 타파니 T 칼러 T 투 서클 랜던** 18K 로즈 골드에 마더오브밀로 포인트를 줬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문의 1668-1906 포토그래퍼 **박재홍** 에디터 **장라윤**



새로운 이름으로

숫자 8을 모티브로 한 프래드의 시그니처 컬렉션 에잇디그리제로에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바로 상스 인피니티 이를 기념해 디자이너 아멜리아 미켈슨의 사선으로 재해석한 캄슬렉션을 선보인다. 케이블에서 영감을 얻은 대담한 곡선과 체인 링크, 드래프트 등 조형적인 선이 프래드의 미학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링, 네크리스, 컵 브레이슬릿, 이어링 등 네 가지로 캄슬렉션을 구성했다. 과감한 비율과 관능적인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는 컵 브레이슬릿 2천5백41만원, 문의 02-514-3721

THE PACE of KNTT

몸을 감싸는 부드럽고 따뜻한 니트 고유의 감촉을 즐기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 최고급 니트웨어를 선보이는 이탈리아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브루넬로 쿠치넬리가 남성용 니트 스니커즈를 출시했다. 작조 패턴을 그대로 차용한 섬세한 니트 소재의 아퍼(upper)와 적당한 굽의 초경량 솔(sole)이 어우러진 러너 스타일 운동화다. 길을 떠나다 탄력 있는 니트 소재가 발을 유연하게 감싸 편안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이에 더해 소재가 주는 보온성, 스타일리시함까지 만족할 수 있으니 올 가을, 겨울을 위한 완벽한 선택일 수밖에! 1백23만원, 문의 02-3448-2931



LUXE BROWN

각별하는 트렌드 속에서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여성의 '잇' 백 리스트에 오른 조이그라이스니이 따끈따끈한 가을 신제품 소식을 전해왔다. 미고 시켈 백이 그 주인공. 견고한 이탈리아 소가죽으로 제작한 스트러치 백 스타일에 고풍스러운 진저 브라운 컬러를 입혀 완성한 이 아이템은 어떤 순간에도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룩을 연출해줄 것이다. 40만원대, 문의 080-202-2002



#헤어밴드

얇아 입혀도 주얼 장식 헤어밴드로 헤어스타일에 한층 재미를 더해줄 것. (왼쪽부터) **로저 비비에 RV 스타라스 헤어밴드** 벨벳 밴드에 크리스탈을 화려하게 수놓은 RV 스타라스 헤어밴드 1백16만원, 문의 02-6905-3370 **프라다 에펠 헤어 밴드** 대담한 메탈을 뽐내는 메탈 헤드 밴드 50만원대, 문의 02-3218-5331 **구찌 블랙 벨벳 헤어밴드** 시글러스룬 리본 장식 이 특징인 블랙 벨벳 헤어밴드 38만원, 문의 1577-1921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이유미**



DRINK

국내 수제 맥주 브랜드 핸드앤몰트가 호프 꽃의 특별한 싱그러움을 담은 '하베스트 IPA'를 2천 캔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2015년 처음 나온 이래 매년 가을 맥주 애호가들을 설레게 하는 하베스트 IPA는 생음의 신선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제품 중 하나다. 핸드앤몰트의 가명 홈 농장에서 직접 손으로 수확한 선테나일 홉을 당일애 양조하는 레시피를 고수하는 덕분에 특유의 진하고 신선한 향이 빛어진다. 올해는 처음으로 20L 생맥주와 함께 355ml 캔 맥주를 내놓았다. 정통 IPA의 씩씩한 맛과 진한 시트러스 향이 매력적인 하베스트 IPA는 경북공 인근과 송파, 광화문에 위치한 핸드앤몰트 탬을 세 곳과 핸드앤몰트 용산 브루어리를 비롯한 다양한 핸드앤몰트 취급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3천5백여 잔을 한정 판매하는 생맥주는 1잔에 7천5백원, 2천 캔 한정 판매하는 캔 맥주는 1캔에 6천6백원이다. 문의 080-022-3277



PERFECT EYES

마스크 위로 드러나는 또렷하고 날렵한 눈매를 위한 아이 메이크업 아이템 4. (위부터) **샤넬 로 라이너드 샤펬 #516 루주 노르** 밀고 성세한 브러시로 정교한 아이라인 연출이 가능한 제품. 풍부한 피그먼트를 함유한 리퀴드 타입으로 감김 없이 완벽한 선을 그릴 수 있다. 2.5ml 4만7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리프레이 스킨 케어 퍼펙트 컨실러** 스킨케어와 컨실러를 합친 올인원 아이템. 케어와 주름살이 눈가 피부에 영양과 보습을 주고 탄력 개선을 돕는다. 마사지 효과로 부기도 완화되는 6ml 2만9천원, 문의 02-511-6626 **지형시 라이너 디스토퍼**야 생세하고 정확한 라인을 그릴 수 있는 폼 펜 타입 아이라이너. 24시간 지속력과 워터프루프 기능으로 유분과 눈에 강한 편이다. 1.5ml 3만5천원대, 문의 080-801-9500 **다올 디올스 아이코닉 오버립 #090 블랙** 곡선형 브러시가 뿌리부터 출출하고 고르게 발리드록 도와주고, 풍부한 볼륨 효과를 선사한다. 포플라에 함유된 코튼 나트 생분해 속눈썹 강화 효과를 발휘한다. 6g 4만5천원대, 문의 080-342-950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이유미**

CLASSIC yet MODERN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과 감성을 담은 럭셔리 브랜드 콜롬비아 델라 스피가에서 이번 시즌 '아폴로(Apollo)'라는 이름의 새 핸드백 컬렉션을 론칭한다. 아폴로 신선의 웅장한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조형적 디자인이 돋보이는 솔더백으로 최고급 날라티쿠스 악자 가죽을 사용했다. 외관은 견고하고 고급스럽지만 실용적인 솔더 스트랩을 다한 덕분에 포멀 룩뿐 아니라 캐주얼한 스타일에도 두루 매치하기 좋다. 굵기와 길이가 다른 두 종류의 가죽 스트랩에 워링 스트랩까지, 총 세 가지 스트랩을 제공해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것 또한 장점. 아폴로 백은 그린, 블루, 딥 레드, 총 세 가지 컬러로 전개하며, 국내에 위치한 11개의 콜롬비아 델라 스피가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2천만원대, 문의 02-516-9517





반듯한 양자극 소재 인티모나 스트랩 백, 47x60cm, 8만2천원 **바버리**.

나일론과 캔버스, 활상패를 조합한 버킷햇 가격 미정 **다들**.

잘가라 스트링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트랜치코트 가격 미정 **바버리**.

우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에르메스**.

Selection

강엄 체크에서 글렌 체크까지! 가을에 더욱 빛을 발하는 크고 작은 체크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캐시미어 소재 체크 머플러 1백50만원대 **로로피아나**.

레이스 소재 1백만원대 **만디**.

호보 스타일 백백 가격 미정 **바버리**.

합스틸을 소재 1백만원대 **바버리**.

플라시 블랙 가죽 80만원대 **바버리**.

미르스 데이 슈즈 1백만원대 **생 로랑 by 인토니 바카렐로**.

레드 로우 타이 가격 미정 **구찌**.

데님 맨투맨도 다양한 플렌스이드를 어울리는 실용적인 **블루투스** 가격 미정 **바버리**.

자양시 02-546-2790 **다들** 02-3480-0104 **바버리** **웨스트우드** 02-543-1713
 브라운니 02-516-9686 **만디** 02-2057-9023 **셀린느** 02-540-0486 **바버리**
 080-700-8800 **에르메스** 02-542-6622 **생 로랑 by 인토니 바카렐로** 02-549-5741
구찌 1577-1921 **로로피아나** 02-546-0615 **벨루티** 02-547-1895

ALFRED WEARE 영장형 미니백 가격 미정 **에디터 아우디**

견고한 송아지 가죽으로 완성한 트리오메, 22.5x16.5cm, 4백35만원 **셀린느**.

SHINSEGAE MAIN GANGNAM CENTUM CITY
 HYUNDAI MAIN COEX BUSAN DAEGU
 LOTTE AVENUE AVENUE WORLD TOWER
 GALLERIA LUXURY HALL EAST AK PLAZA BUNDANG STORE
 T.02.516.9517 WWW.COLOMBOVIADELLASPIGA.COM



COLOMBO
 1955
 VIA DELLA SPIGA
 MADE IN ITALY

그림에도 찾아온 비엔날레의 계절

원래 세계 미술계에서는 홀수 해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더 큰 편이다. 여기에는 2년마다 열리는 글로벌 미술 잔치인 비엔날레가 큰 몫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유서 깊은 베니스비엔날레의 미술진과 현대미술의 수도로 통하는 뉴욕을 무대로 하는 휘트니비엔날레를 비롯해 주요 행사인 홀수 해마다 펼쳐져왔기 때문이다. 물론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아트 페어가 단순한 미술 장터가 아니라 멀티 플랫폼으로도 인기를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상업성을 배제한 커다란 담론의 장인 비엔날레의 무게감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언젠가부터 어디를 가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주제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참신한 시도를 느낄 수 없는 행사의 남발로 '진부하다', '비엔날레 과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위상도 약해지기는 했지만 말이다. 한국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10개가 넘는 지자체가 저마다 비엔날레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아우르는 화두를 깊이 고민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담기에는 조직 내분이나 단기간의 준비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자주 발목을 잡는다. 급조된 환경에 따른 빈약함, 혹은 산만함이 표출되기 일췌이고 말이다. 그래도 나름의 노력은 계속되어왔고, 특히 짝수 해 가을은 비엔날레의 계절로 자리매김해왔다. '브랜즈'에 가장 가까운 명성을 쌓아온 광주비엔날레, 모태를 따지자면 최장연의 역사를 지닌 부산비엔날레, 메가폴리스의 장점을 품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렇게 우리나라 3대 비엔날레가 비슷한 시기에 잔치를 벌여왔다. 그런데 올해는 이 중에서 부산만이 예정된 일정대로 비엔날레를 소화하기로 해 이목이 쏠린다(9월 5일~11월 8일). 마침 상투적인 주제나 방식을 택하지 않아 기대를 받고 있던 터라 이번 기회에 부산비엔날레가 차별된 입지를 굳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10회를 맞이한 2020 여수국제미술제도 변적이 넓고 개방성이 있는 바탕화장을 활용해 한 달간의 일정을 펼친다(9월 4일~10월 5일). 온라인과 현장 콘텐츠를 모두 준비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코로나 시대의 비엔날레, 어떤 여정을 꾸려갈지 궁금해진다.

여수국제미술제, 금기어를 통해 세상을 곱씹어보다

작은 베니스라 불릴 정도로 수려한 풍광을 지닌 해양 도시 여수. 2006년에 시작한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은 비엔날레처럼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한 달간 열리는 데, 4만 명 넘는 관람객을 동원하며 지역의 활기를 북돋는 문화 예술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행사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공식 한글 명칭을 여수국제미술제로 바꾸고 <해제(解題: 금기어)라는 주제전을 내세웠다. 말 그대로 이 세상 금기어에 대한 작가들의 다양한 해석을 담고 있다고. "감염증이 세상을 덮은 세상에서 내 옆을 지나가는 이가 어깨만 스쳐도 인연이 아닌 더러운 병균의 외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넘쳐나는 지금이다. 금기, 타자, 혐오 같은 것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며 한 가지 이유에서 생성된 것도 아니다. 개인사와 사회, 사진, 역사적 입장과 해석에 의해 동일한 상황이 얼마나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 또한 예술의 역할 중 하나다. 그런 만큼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나, 우리의 무지와 대면하도록 해야 한다." 조은정 전시감독이 전하는 전시 의도는 우리가 처한 팬데믹 상황과 묘하게 잘 들어맞는다. 우리 일상을 파고든 금기어는 무엇일까? 조 감독은 이념을 의미하는 빨갱이, 빈부 격차에 대한 생태적 지적인 흡수자, 낙오자, 하위문화의 오토쿠와 쿼어, 여혈, 남혈, 심지어 아줌마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금기어는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이라고 설명하며 "우리 삶을 옥죄는 것에 대한 인식,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응시할 때에만 진실이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주제전에는 국내외 작가 46팀이 참여했고, 유화, 한국화, 조각, 설치,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다룬 작품이 선정됐다(여수 지역 작가 41명이 합류한 참여전도 있다). 독일의 사진 거장 토마스 스트루스(Thomas Struth)가 평양 거리를 담은 작품이라든지 영국의 스트리트 아티스트 뱅크시(Banksy)의 회화와 영화, 캄보디아 작가로 사양이 보고 싶어 하는 동양의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호베이 샴상의 영상, 우리나라 조각가 유인(1956~1999)의 주요 작품 3점, 관람객이 금기어를 비누 블록에 적어볼 수 있게 한 설치 작품 등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다. 또 여수의 아픈 역사를 반영한 작품도 이목을 끄는데, 작고 네모난 천에 이름을 6백2개나 수놓은 판에 휴대폰 플래시라이트를 결합해 무덤도 없이 스러져간 이들을 기린 박미희의 '이름-플래시라이트'라든지 여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없는 금기어인 여수 사건을 완전히 반대 관점에서 바라본 2명의 시인을 다룬 신재현 X 김윤재의 '금기의 숲' 등이 있다. 현장 관람은 네 곳의 공간에서 이뤄지며 한 번에 50명씩 2백 명이 동시 입장할 수 있다(www.yiaf.co.kr).



1 류인, 휴-난치도(1991), 설치미술 원본. 2 율헤로 10회를 맞이한 여수국제미술제 YIAF의 포스터. 3 박미희, 이름-플래시라이트. 그동안 일기처럼 해오던 작가의 작업 '이름은 관악이 휴대용 플래시라이트를 비추면 비로소 조명되고 실재하게 된다. 4 최재훈, Homo homini lupus, 현대적 사냥꾼의 기념비(2020). 5 토마스 스트루스, 평양(2007). 6 박미희, 망각(2020), 97x130cmx3ea, 리넨에 아크릴.



001KIM은 비엔날레 조차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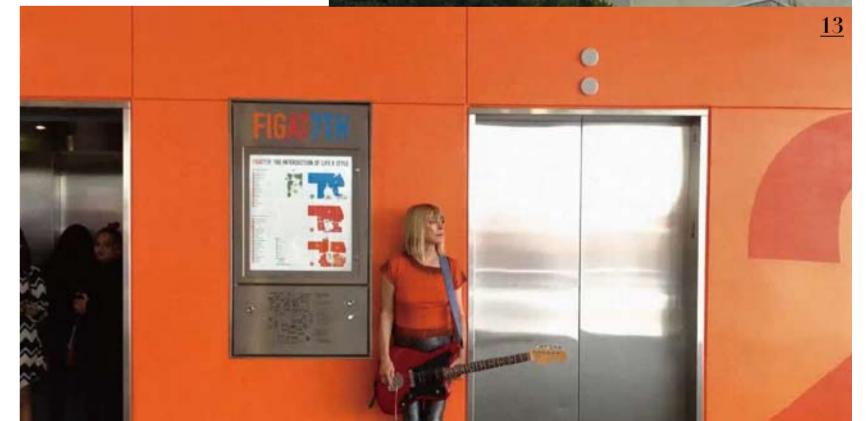


부산비엔날레, 도시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매혹적인 다중주

9월 5일 온라인으로 개막한 2020 부산비엔날레는 세부 계획이 발표될 당시부터 남다른 주목을 받았다. '불확실성 속 해법을 찾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며 동시대 미술이 취해야 할 자세'라는 취지로 진행 의지를 밝혔고, 전시 방식도 신선한 구석이 있어서다.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 전시 제목이 암시하듯 이번 비엔날레는 문학에서 출발한다. 김혜순, 배수아, 박솔미, 편혜영, 김승우 등 한국 작가를 비롯한 다국적 저자 11명이 부산이나 도시를 소재로 탐정·공상과학소설 등 다양한 글을 썼고, 그렇게 태어난 10장의 이야기와 5편의 시를 묶은 문집이 시작점이다. 각각에 대해 시각예술가와 음악가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응답'했고, 34개국 90명 아티스트가 참여했다. 유일하게 시로 참여한 김혜순 시인의 파트너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비앙카 봉디(Bianca Bondi)는 자가 격리까지 감수하면서 부산을 찾았다. 김 시인의 작품 5편 중 '고나라는 시에서 영감을 받아 장소 특정적 설치 작품을 선보였는데, 흥미롭게도 그는 자신의 작업 대부분이 '읽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보통은 하나의 구절이 나머지에 영감을 주고 그것이 작품명이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의 시 전체를 참고해 진행한 첫 작업입니다." 야콥 파브리시우스(Jacob Fabricius) 감독은 "인체에 비유한다면 문학이 뼈대, 시각예술은 장기와 뇌, 음악은 조직과 근육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문학, 시각예술, 사운드를 유기적으로 엮는 이 같은 방식에 대해 그는 10개의 피아노곡과 5개의 간주곡으로 구성된 무소르스키의 작품 '전람회의 그림'(1874)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무소르스키는 자신의 친구인 건축가이자 예술가 빅토르 하르تمان이 남긴 그림 10점을 '소리로 표현했는데, 이처럼 예술을 해석하고 다른 매체로 번역하는 접근법을 빌려왔다는 것. 또 심사를 통해 선발된 부산 시민들이 작품집을 낭송한 오디오 북을 제작한 시도도 바람직해 보인다. 전시 장소도 부산현대미술관, 원도심 일대, 영도 등 곳곳에 펼쳐져 있어 보물창하 하듯, 탐정 놀이 하듯 도시의 역사와 거리와 문화를 즐기도록 하려는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물론 현장 투어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 가능하지만, 야외에 설치된 작품들은 온라인 관람 기간에도 감상할 수 있다(원도심 일대의 주차타워에 현수막으로 설치된 김희천의 '드림'(2020),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외벽에 설치된 노원희의 '거리에서(1980)', '말의 시작(2015)' 같은 작품이 그렇다). 부산비엔날레 조직위는 일찌감치 '인택트 관람'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짜겠다고 한다. 그래서 전시 감독이 관람 포인트를 소개하는 온라인 투어와 웹으로 전시 공간을 살펴볼 수 있는 3D 입체 전시, 참여 음악가의 사운드스케이프, '시민 성우'의 오디오 북 등 다양한 인택트용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사실 도시를 '읽고, 보고, 듣는' 건 '렌선'으로도 가능하고, 어떤 면에서는 집중도가 높아지는 지점도 있다. 하지만 역시 전시 공간과 도시 구석구석을 활발하며 생생히 '느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터. 부디 그런 자유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랄 뿐이다(www.busanbiennale.org/kr). 글 코성연



7 스테판 들라루스, 무제스(2020). 부산현대미술관 설치. 8 노원희, 거리에서(1980).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외벽 설치. 9 영도에 자리한 비엔날레 전시장. 10 문희나 시각예술, 음악이 서로 연결되는 전시 방식을 내세운 2020 부산비엔날레의 포스터. 이번 비엔날레는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에도 해답을 제시할 예정이다. 11 김혜순 시인의 '고'에서 영감을 받은 비앙카 봉디 작가의 장소 특정적 설치 작품 비안마(전) 독립채널의 사생활(2020). 12 부산 원도심 일대의 주차타워에 현수막으로 설치된 김희천의 '드림'(2020). '매항'은 이디야는 박솔미의 소설 '가을의 계절'을 연상. 13 소설가 이상우와 협업한 아티스트이자 뮤지션 김고든(Kim Gordon)의 작품. Los Angeles June 6 2019(2019).





티파니 루비 컬렉션
 밝게 타는 불꽃처럼 눈부신 붉은빛 루비는 사랑과 열정을 상징한다. 사진 속 제품은 모잠비크에서 산 소상되는 루비 원석을 사용한 티파니 솔리스트 이어링으로, 플래티넘에 루비를 세팅하고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매치했다. 가격 미정 티파니. 문의 02-6250-8620



불가리 디바스 드림 컬렉션
 과거의 디바는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을 예찬하는 컬렉션 디바스 드림은 유려한 곡선과 다양한 정수론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로즈 골드로 만든 아이코닉한 부채꼴 모티브에 페어 셰이프 루비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루비,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디바스 드림 오픈워크 네크리스 4천4백만원대, 로즈 골드 페어 셰이프 루비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오픈워크 이어링 2천9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문의 02-2056-0170

ruby lady

중세에 힘과 권위를 상징하며 유럽 궁중 화가들이 그린 왕이나 왕족의 초상화에 공식처럼 등장했던 루비. 가을에 어울리는 유색 보석, 레드 루비를 담은 주얼리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다이아니 벨 에포크 컬렉션
 아름다운 사랑을 뜻하는 벨 에포크 컬렉션은 영원불멸한 매력과 매혹적인 감성을 담고 있다. 다이아몬드와 0.117캐럿 루비를 하트 형태로 세팅한 벨 에포크 하이트 골드 네크리스 3백66만원, 브레이슬릿 4백48만원 모두 다이아니. 문의 02-3213-2141



카르띠에 데스티네 컬렉션
 우아한 광채를 지닌 센터 루비와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아름답다. 센터 스톤뿐만 아니라 페어브드 다이아몬드까지 정교한 클로 세팅을 해 각 스톤의 아름다움과 광채를 극대화했다. 18K 화이트 골드에 오벌 컷 루비를 세팅한 네크리스 가격 미정 카르띠에. 문의 1566-7277 에디터 장미윤



JOY GRAYSON

(위부터) **카르띠에 파사 드 카르띠에** 투박한 듯 보이는 매우 정교한 리운드 형태의 방수 케이스, 스크류 다운 크라운과 채인으로 연결된 크라운 커버, 장사형 레일 트랙과 숫자 인덱스로 그래픽 무드를 살린 다이얼까지, 고유의 디자인 코드가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스틸 소재 케이스의 지름은 41mm로 브레이슬릿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픽스워치 시스템, 브레이슬릿 길이를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링크 시스템을 갖췄다. 7백30만원대. 문의 1566-7277

타파니 아틀라스 3원즈 타파니 뉴욕 본사 외벽에 설치된 유사 깊은 창동 시계의 로마숫자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한 아이코닉 컬렉션. 강렬한 로마숫자 인덱스를 더한 살바 이우르 다이얼과 스틸 & 로즈 골드 소재의 조화가 도화적인 무드를 자아낸다. 케이스 지름은 37.5mm,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바세론 콘스탄틴 오버시즈 듀얼 타임 블루 레커 다이얼을 매치한 스틸 소재의 오버시즈 워치는 2이월과 스프리징을 모두 안겨줄 수 있는 모델. 2개의 타임 존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 듀얼 타임 기능을 갖춘 셀프 와인딩 칼라버 5100 DT로 구동해 더욱 특별하다. 150m 방수 기능, 6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한다. 케이스 지름은 41mm. 3천만원대. 문의 02-3446-0088

오메가 올림픽 게임 컬렉션 시아스터 오메가 코-엑시엄 마스틱노노미터 타이프링 유선에서 영감을 가져와 과거의 스포츠와 올림픽 대회를 상징하는 오렌 디자인을 차용했다. 지름 39.5mm의 스틸 케이스에 장중한 블랙 & 화이트 컬러 다이얼은 직관적인 디자인이 특징으로 분당 삼바수를 측정할 수 있는 필스 리더, 미닛 트랙, 날짜창을 더했다. 오메가 141원짜리 올림픽 경기의 모든 야장을 새긴 알루미늄 링 장식의 케이스 백 또한 특별한 요소. 2천92개 한정 출시한다. 6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블라티 오토 오리지널 크로노그래프 1백10개의 단면으로 이뤄진 구조적인 케이스를 통해 건축학적 코드를 담았다. 다이얼 내부와 베젤 외부를 감싸고 있는 8개의 각이 강렬함을 주는 동시에 블랙 다이얼, 블랙 라버 스트랩과 아우라진 로즈 골드 소재 케이스가 세련된 인상을 풍긴다. 크로노그래프와 날짜 표시 기능을 갖춘 오토매틱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케이스 지름은 41mm. 2천8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파세라이 루미노스 두에 백금과 구리를 사용해 우아한 빛을 발한 파세라이 고유의 신소재 골드테크™ 케이스와 지름 38mm의 크림 화이트 컬러 다이얼, 레드 옐라기아터 스트랩의 조화가 아름답다. 남녀 모두 착용할 수 있는 사이즈로 픽 플리스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스트랩으로 쉽게 교체 가능하다. 다양한 스타일링을 즐길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다. 두께 4.2mm로 파세라이 매뉴팩처에서 개발한 가장 얇은 칼라버 P. 900을 탑재했다. 1천8백만원대. 문의 02-6905-3394 에디션 **아메비**



watch me play

시계를 즐기는 세대도,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보다 젊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찾는 이들을 위해 준비한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아니메트 조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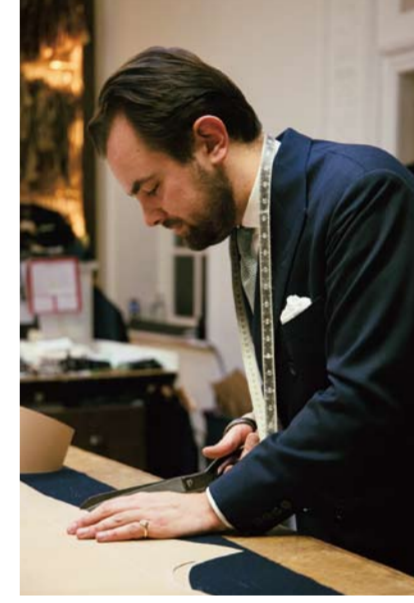


미래의 비스포크

수트와 비스포크가 위기를 맞고 있다. 다가올 사회는 더 이상 패션에서 장인 정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듯 보인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런던 새빌 로 양복점들의 몰락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할 패션과 우리가 지켜나기야 할 아름다운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이른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새빌 로를 비롯한 런던 전역의 상점이 문을 닫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대다수 양복점은 휴업을 유지하고 있다. 개중에 서너 곳은 다시 개점했지만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적된 부채를 견디지 못해 폐업한 곳도 상당하다. 나는 겨울이 끝나갈 즈음 완성한 수트를 마지막으로 휴업한 양복점을 떠나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 영국처럼 양복업계가 마비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의 사정도 그리 좋지 못한 듯하다. 서울 모처에서는 테일러들의 회동이 열렸는데, 표면상으로는 여러 부자재를 공동 구매해 재료를 절감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지금의 사태를 맞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불미스러운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 강제로 격리된 후 나는 한동안 바늘을 잡지 못하고 그저 침상과 책상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다. 미래에 탁월 거대한 파도에 지금까지 해온 비스질이 순식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새빌 로의 황량한 거리, 그리고 한국 맞춤 양복업계의 위기를 보며 생각한다. 과연 미래에 비스포크는 필요한 것일까.

특정한 산업이 필수적인가, 그리고 문화적으로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기 전에 비스포크의 의미부터 되짚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비스포크의 의미는 능동적으로 시대와 호흡하는, 역사가 검증한 의복이다. 한 철학자가 말한 '영원의 시점에서 언제나 새물결이 해석되는 아름다운 가치 중 의복에 해당하는 것이 비스포크다. 이 의미가 발전되어가는 내일의 특성에 부합한다면 예술과 기술이 오묘하게 결합된 이 아름다운 산업이 유지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비스포크를 위협하는 미래의 요소는 항상 존재해왔다.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시작된 신사복의 대량생산으로 국내 양복점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미래에는 적은 시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계에 밀려 비스포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만연했다. 기계는 사람의 손이 거쳐야 할 여러 작업을 대신해왔다. 빠르고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옷을 정확히 꿰매는 의류 작업의 기계화는 미래의 가장 큰 특징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한 치의 오차 없이 기계적으로 비스질했거나 몸에 맞춘 옷은 도리어 무언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훌륭한 비스질과 인체를 감싸는 패턴이 비스포크의 특성은 맞지만 그제 전부라고 할 수 없으니, 이 산업이 매력적인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공예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Been Spoken for'라는 단어의 어원처럼 오차 없는 기계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주고받는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는 심미인이 옷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기계화는 장인과 비스포크를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 테일러나 디자이너의 쓸데없는 반복적인 시간을 줄이고 인간 본연의 창조 시간을 마련한다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바르다. 미래의 비스포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패션에 공예적인 창조성을 부여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고 개성 있는 디자인의 옷을 생산하는 토대가 되어주리라 믿는다. 트렌드의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양복의 대중적인 인기는 시들해졌다. 시대가 갈수록 우리는 단순함을 좇는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남성 아우터의 경향은 넉넉한 실루엣과 복잡한 지 않은 디테일이었다. 코트나 재킷의 원단에 들어가는 심지를 가볍게 하거나 생략한 옷도 많았다. 경량화와 단순화로 향하는 패션의 흐름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스포크 수트를 벗게 했다. 1880년부터 이어진 유명한 양복점인 킬고어(Kilgour)의 폐점,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스타일리스트이자 전속 디자이너 하디 에이미스(Hardy Amies)의 몰락은 시대가



더 이상 그런 옷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하다. 전통을 고수해온 다른 양복점들도 쇼윈도에서 갑옷 같은 수트를 잠시 치우고 사파리 재킷이나 일명 '샷기라' 불리는 셔츠의 형태로 출시된 캐주얼한 재킷을 전시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양복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오랜 습관을 고민 없이 답습하거나 새로운 영감이 들어설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테일러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러나 래글런 백자가 불편한 팔을 넣기 쉽도록 만든 것이 래글런 코트의 원조였고,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참호에 숨기 위해 고안된 것이 트랜치코트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옷을 디자인한다면 비스포크는 위기를 넘어 미래에도 유지될 것 같다는 희망이 보이기도 한다.

인간의 손길을 극도로 최소화한 옷을 생산하는 것도 미래의 특성 중 하나다. 사람이 하나의 옷을 킨트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한 가지 디자인의 수많은 옷을 킨트룰한다. 대량으로 빠르게 생산되고 쉽게 소비되어 버려지는 SPA의 흐름은 미래 패션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브랜드에서 감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비스포크는 이러한 부분을 파고든다. 일례로 나는 최근에 중등 국가의 왕자를 위해 옷을 만들었다. 그는 체형상 허리가 곧은 편이었지만 목이 심하게 앞으로 굽어 기존 수트의 목 부분이 가지런하게 놓이지 않았다. 주름 없이 매끈한 양복이 입고 싶어 양복점을 찾아왔을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민 끝에 칼라에 덧대는 심지를 여러 겹 손으로 누벼 목 부분에 넣어 재킷을 만들었다. 비스포크에는 주문자를 위해 양복을 꿰매는 기술뿐 아니라 고객을 위해 골똘히 고민하는 시간도 포함된다. 무인화로 대표되는 미래의 옷은 예민한 착용자에게 만족감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다양한 체형이 존재하는 만큼 각기 다른 감성과 그에 맞는 기술이 존재한다. 이것은 아직 미래의 옷이 충족하지 못하는 비스포크만의 장점이다.

'Classic Does Not Stay Long'이란 말이 있다. 이 표현이 비스포크가 나아갈 방향을 잘 설명해주는 말이 아닐까 한다. 비스포크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변화를 거듭하며 과거에 안주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4백 년 전 런던 전역이 잿더미가 되고 국가 위기 상태에 놓였을 때 수트라는 의복이 탄생했고, 왕족과 귀족의 전유물이던 오트 쿠튀르는 혁명을 거치면서도 살아남았다. 비스포크는 미래의 유행에 항상 열려 있고 그것을 수용하며 현재에 맞게 가공되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묵묵하게 지켜온 전통의 힘으로 미래를 선도해나갈 추진력을 얻은 것이다. 지금 비스포크가 위기를 맞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다.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재한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비스포크가 지닌 상상력과 예술적 영감은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패션 산업이 될 것이다. 글 김동현(런던 새빌 로의 한국인 테일러) edited by 장민준

2020 F/W menswear Trend report

trend 1 MAXI TAILORING



SALVATORE FERRAGAMO

ERMEGILDO ZEGNA

Loro Piana

영하로 곤두박질하는 혹한의 기온 속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 매력적인 F/W 필수 아이템, 코트는 트렌치코트와 타일러드 코트를 중심으로 크게 양분화된다. 완벽하게 짜인 테일러링을 바탕으로 디자이너마다 제각각 특유의 실루엣과 디테일을 조합해 고루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인데, 유연한 볼륨감으로 부각한 남성성이 공통분모다. 패드를 넣어 강조한 어깨라인과 드라마틱한 소매, 과장된 오버사이즈 핏과 발목에 이르는 길이, JW 앤더슨과 리프 시몬스가 선보인 쿼터리적인 트라페즈 실루엣이 대표적이다.

고급스러운 소재와 세련된 컬러로 무장한 수트 스타일이 남성 트렌드의 핵심. 한동안 지속되던 애슬레저 룩의 강세는 다소 수그라들었지만 콜하고 시크한 에티튜드의 여운은 여전히 짙게 남은 듯하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고전적인 이탈리아 테일러링과 자유분방한 유스(youth) 컬처의 앙상블.

trend 2 SLIM SILHOUETTE



PRADA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ello

Givenchy

BOTTEGA VENETA

2000년대 초반 남성복 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에디 슬리먼의 다음 몸매 수트. 이를 입기 위해 40kg 가까이 체중을 감량했다는 고 칼 라거펠트를 기억하는가? 마치 20년 전 에디 슬리먼과 라프 시몬스가 누가 더 슬림한 수트를 선보이는지 전투 같은 경쟁을 벌이던 때처럼 프라다와 보테가 베네타, 구찌, 자발시, 델파 등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스 & 슬림' 실루엣이 연이어 등장했다. 신사복에서 볼 수 있는 노트 라펠 같은 전통적인 기묘 양 칼라를 장식한 베스트에 슬리밍하고 센수얼한 타치를 더해 요즘 감성으로 재해석한 자발시, 물에 적잖은 듯 타이탄 나트 베스트를 제안한 프라다 등 클래식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간결한 스타일이 주목받았다.

trend 3 IN ONE COLOR



PAUL SMITH

BOSS

BALMAIN

흑과 백으로 통용되던 모노컬러의 강세가 줄어들고, 방향색채 다양한 색이 이젠 시즌 컬러 팔레트를 풍요롭게 채웠다. 단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컬러가 트렌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크래용 컬러를 중심으로 발랑의 어스 컬러, 보스의 부드러운 파스텔 톤과 루이 비통의 내은 색상이 눈에 띈다. 컬러 블로킹 없이 한 가지 색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렁 '갈' 맞추는 것이 포인트 컬러를 강조하는 대신 장식성을 줄여 시각적인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Bottega Veneta

Bottega Veneta

trend 4 BAGS for MEN



JIL SANDER

GUCCI

Valentino Garabani

주머니가 여러 개 달린 빅백이나 범 백처럼 기능을 강조한 유틸리티 피스가 중심이 되던 지난 시즌과 달리, 네모반듯하고 각진 스트럭처 백이 강세다. 또 젠더리스 코드로 무장한 꾸찌 쇼에서 확인할 수 있던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지던 핸드백에 대한 시선의 재확립이 필요한 때이기도. 미디 길이의 핸드백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을 선보인 질 샌더와 남녀 공용 미니 사이즈 크로스보디 백을 소개한 자크 뤼시가 남성 백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trend 5 LIVELY SWEATER



7 MONCLER FRAGMENT

Bertuti

HERMÈS

NEIL BARRETT

trend 5 LIVELY SWEATER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한 룩을 표하는 에포를라스 시크(effortless chic) 스타일에 보다 적극적인 자제가 요구된다. 친숙한 기본 스웨터는 일상성을 해치지 않는 범주 안에서 모티브를 새겨 넣어 활력을 더했다. 캐시미어와 코튼 등 착용감 좋은 소재에 그래픽적 모티브를 기묘해 포인트를 배가하는 식. 컬러 역시 베이직한 컬러군 안에서 자연스럽고 세련된 톤의 변화를 유도했다. 에르메스와 닐 바렛처럼.



Dsquared2

Bertuti

FENDI

RICK OWENS

DIOR MEN

퍼 소재는 단연 F/W 시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 특히 가죽과 모피의 명가 펜디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재킷부터 코트까지 다채로운 비율로 소개한 퍼 아이템은 혹한의 겨울을 멋스럽게 나기에 안성맞춤이다. 가죽 재킷 소재와 어깨에 과감하게 게시어링 소재를 덧댄 리오웬스, 클래식 시크 버전의 무튼 재킷을 선보인 벨루티 컬렉션에서 엿볼 수 있듯 디자이너들은 멋과 실용성 어느 한 가지도 놓치지 않았다.

trend 6 WHOLE PATTERN



ALEXANDER MCQUEEN

SACAI



Paul Smith

아트와 영항력은 패션계에도 계속 발휘될 예정. 순수한 반복 기법에서 아날로그적 핸드 드로잉과 추상적 기법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효과가 공존한다. 프라다 쇼에서는 기묘한 패턴이, 루이 비통에서는 초현실적인 구름 모양의 향연이 이어졌다. 그동안 포인트로만 활용되던 패턴이 룩 전반에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용한 올 오버 룩은 달아낸 디테일과 간결한 실루엣으로 강약을 조절했다.

trend 7 1970s FEVER



TOM FORD

Tod's

GIVENCHY

몇 시즌째 러웨이로 장악해온 '뉴 레트로' 트렌드는 1970년대 초에 유행했던 화려한 장식과 톤온 톤 컬러 플레이가 특색 있는 스타일로 제인된다. 빈틈 풀이해진 셔츠와 슬릭한 벨보텀 팬츠, 플로럴과 기묘한 프린트가 호탕하고 자유분방한 에티튜드를 강조하며 마치 글램 룩을 대표하는 두 패턴 아이콘, 믹 재킷과 데이비드 보워를 연상시킨다. 잠잠은 분위기를 요하는 '이탈리언 테일러링' 트렌드와 극명하게 대비되지만 거부하기 힘든 처형적인 매력의 남성성으로 러웨이에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었다. 에디터 이주이

Gucci

합당한 배기 수트의 스타일링(1시간)
매력, 체크 코트 5백20만원,
재킷 가격 미정, 팬츠
1백48만원, 그린 터틀넥 폴오버
1백33만원 모두 **별무티**.



NEW DANDY

강인함보다는 감수성으로 다가오는,
드라마틱한 2020 F/W 남자들의 뉴 룩.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풍성한 컬러풀 재킷과 루스 팬츠의
매치가 시크하다. 레드 재킷,
스웨이드 베스트, 화이트 셔츠,
그레이 팬츠, 블랙 부츠, 레드 타이
모두 가격 미정 **프리다**.



스트 재킷으로 유니크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브라운
블루즈 가격 미정, 베이지 후드 톱
1백60만원, 블랙 팬츠 가격 미정,
블랙 부츠 1백50만15천원
모두 보타가 베네다.



슬리한 캐주얼 룩과 볼륨이
풍성한 트렌치코트의 매치.
버건디 트렌치코트, 니트 톱,
레드 라텍스 티를레 폴오버,
블랙 레더 팬츠, 블랙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자형사.



복고풍의 럭셔리 스트리트
캐주얼 스타일. 블루 색인
블루중 4백50만원, 터틀넥
톱 가격 미정, 다님 팬츠
1백20만원, 브라운 레더 벨트
1백44만원, 레더 스니커즈
가격 미정 모두 톱 포드.



레트로풍 체크무늬 피코트로
연출한 클래식 캐주얼 룩. 체크
코트 5백50만원, 라벤더 니트 톱
1백55만원, 셔츠 가격 미정,
핑크 팬츠 1백50만원, 네이비 베레
가격 미정 모두 구찌.



블랙 앤 화이트 수트의 캐주얼한
번신, 네이비 더블 재킷
2백만5천원, 화이트 저지 셔츠
64만5천원, 티플렉스 플요버
1백7만5천원, 네이비 팬츠
1백13만5천원, 화이트 스니커즈
가격 미정 모두 토토.



리본 장식 블라우스로 완성한
우아한 보아시롱, 베이지 카디건,
화이트 셔츠, 블랙 팬츠, 브라운 무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해이 김우준
메이커업 김도현
모델 박태민 (GOST Agency)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에르메스 02-542-6622
지형시 02-548-2790
보태가 배후타 02-3438-7682
토즈 02-3438-6008
구찌 1577-1921
벨루티 02-547-1895
프리다 02-3218-5331
툼 포드 02-6905-3534





LG전자 4K 프로젝터 시네빔(HU70LA)

동작은 작지만 최대 1백40인치 대화면을 제공하는 프로젝터. 네 가지 광원을 장착한 LED 형식으로 더 밝고 선명하게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구글 인공지능 서비스인 구글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적용해 스마트하게 이용 가능하다. 1백99만원. 문의 1544-7777



일렉트로룩스 퓨어 i9.2

특유의 에어 스트림 테크놀로지™로 강력하게 먼지를 제거한다. 상각 형태 트리나티 세이프™는 가구 밑이나 좁은 틈로, 그리고 모서리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원종 후 최장 1백20분 동안 작동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장점이다. 1백59만원. 문의 1566-1238



필립스 프로타치 스티머

유틸리티 펌프 기술을 적용해 두꺼운 겨울 아우터에서 얇은 셔츠 드레스까지 어떤 패브릭이든 손상될 걱정이 없다. 기존보다 3배 강력한 6Bar 압력 펌프 스팀 침투력으로 옷감 깊숙이 번식하는 바이러스와 세균도 99.9% 제거해준다. 10분 미사용 시 대기 모드로 자동 전환되어 편리하다. 54만9천원. 문의 080-600-6600



드롱기 프리마돈나 XS

슬림한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커피 머신. 에스프레소부터 아메리카노 등 한 번의 터치로 2잔까지 추출 가능하다. 최적의 온도를 맞춰주는 고유 리테 크레마 시스템 덕분에 리테, 카푸치노 등 다양한 메뉴에 손쉽게 도전해볼 수 있다. 4백20만원. 문의 080-488-7711



실콘 인피니티

얼굴뿐 아니라 겨드랑이, 비키니 라인 등 세밀한 부위도 관리할 수 있는 가정용 제모 기기. 블루 라이트로 살균 작용을 갖춘 클렌징 박스를 함께 제공해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FDA, CE, 한국 식약청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받았다. 49만원. 문의 080-246-1234



다이슨 디지털 슬림™

다이슨을 대표하는 V11 무선 청소기의 첨단 기술을 1/5로 작아진 크기와 30% 가벼워진 1.9kg 경량 기기에 집약한 제품.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먼지를 청소하는 기능이 더해졌다. 고급스러운 쿠퍼 컬러와 골드 컬러의 조합에 눈에 띈다. 89만9천원. 문의 1588-4253

밀레 T1 TCG620 WP

내장된 미네랄 센서가 옷감에 남아 있는 수분은 물론 물에 포함된 칼슘 양까지 정확하게 감지해 과잉 건조 없이 섬유 손상을 최소화하는 건조기. 에너지 효율 등급도 A+++에 달하는 친환경 제품. 별집 모양의 육각형 내부 구조가 옷감 사이 마찰을 줄여 부드럽고 섬세하게 건조할 수 있는 것도 장점. 2백78만원. 문의 02-3451-9451



뱅앤올룹슨 베오사운드 밸런스

총 7개 스피커 드라이버로 구동해 강력한 사운드를 자랑하는데, 진동 발생을 최소화해 층간 소음 걱정이 없다. 구글 어시스턴트나 애플 시리(Siri) 등 음성 명령 기능(AI)을 장착했으며 블루투스 기능으로 무선 연결이 가능하다. 원목과 패브릭이 조화를 이루는 스칸디나비아풍 미니멀리즘 디자인이라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손색없다. 2백65만원. 문의 02-518-1380 에디터 **이주미**

#Stay Home

실용성과 위생, 그리고 청결은 필수! 거기에 멋스러움까지 장착한 뉴 노멀 시대, 뉴 가전 리스트 8.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디올 프레스티지 슬림 쿠션 #011** 크림 9ml 출시 신제품 쿠션 파운데이션. 주머니에 속 들어갈 만큼 슬림한 골드빛 케이스에 뛰어난 커버력과 자연스러운 표현력을 동시에 갖춘 장맛빛 포뮬러를 담았다. 14g 13만원. 문의 080-342-9500 **나스 내추럴 레디언트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 SPF 50/PA+++ #판다** 오직 아시아 여성만을 위해 개발해 단독으로 선보이는 셰이트, 디크닝, 무나짐, 들뜸 없이 피부에 16시간 동안 밀착되는 가볍고 상쾌한 포뮬러와 우수한 커버력이 돋보인다. 12g 6만9천원. 문의 02-6905-3747 **리프라리 스킨 케어 에센스-안-파운데이션 SPF 25/PA+++ #포슬린 블러쉬** 리프라리가 자랑하는 생유리 콤플렉스, 케라틴 유호 성분을 담아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동안 스킨케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피부 본연의 생기와 광채를 극대화해 만능처럼 자연스런게 예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15gX2 28만원. 문의 02-511-6626 **랑콤 링 이블 롱라스팅 쿠션 #핑크 아이보리 02** 풀 커버, 롱라스팅을 콘셉트로 빈틈없이 완벽한 피부 표현을 위해 탄생한 쿠션 파운데이션. 피부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송보송하게 마무리하는 특별한 텍스처를 경험할 수 있다. 28g 8만9천원. 문의 080-022-3332 **연진 롱웨어 포슬린 쿠션 파운데이션 #2호** 진초의 영양 성분을 함유한 에센스 인 쿠션 파운데이션. 쏠쏠한 포뮬러가 피부에 온기와 탄력을 부여한다. 상큼한 풀 향에 기미된 자연스러운 시트러스 노트와 아주 은은하게 느껴지는 원형 향이 7분 좋은 제형. 20ml 5만2천원. 문의 1644-4490 **에스티 로더 디벨로퍼 스킵 크림 로우 매트 쿠션 #본** 스테디 & 베스트셀러인 디벨로퍼 파운데이션의 놀라운 커버력과 지속력을 쿠션에 그대로 응축해 담았다. 부드러운 발림성, 촉촉한 수분감을 보강하고 항산화, 자외선 차단 기능을 통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12g 7만원. 문의 02-6971-3212 에디터 **이혜미**



skin perfector

가볍고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 날씨의 변화와 함께 이에 맞춘 새로운 포뮬러의 쿠션 파운데이션을 찾고 있다면, 지금 소개하는 브랜드의 뉴 & 베스트 쿠션 파운데이션을 만나볼 것.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에디터 이주미

editor's Pick

부드러운 컬러와 포근한 텍스처, 그리고 가을의 향을 담은 이달의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데코르테 AQ 마스크라 살피를 추구하는 에디터의 마음을 사로잡은 제품. 화이트 무쿠나 추출물과 자전 무 수액 성분을 함유해 메이크업과 동시에 스킨케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곡선 형태 브러시가 동성 없이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더해준다. 마르셀 빈더르스가 디자인한 패키지가 소장 욕구를 자극. 9g 5만 8천원대. 문의 080-568-3111_by 에디터 이수이

디올 루즈 디올 울트라케어 리쿠트 #999 볼륨 스프레이 팀이 달린 애플리케이션으로 특 특 퍼 발라야 하지만 틈, 림플로스가 아닌 리쿠트 타입 립스틱이다. 카멜리아, 스위트 아몬드 오일, 시아씨더 등을 결합한 부드러운 텍스처가 특징으로, 따스한 메트한 편. 선명하고 강렬하게 발색되는 레드 컬러 포물러를 자연스럽게 커버하면 붉은 꽃잎이 연상된다. 6ml 4만5천원대. 문의 080-342-9600_by 에디터 이혜미

네오젠 캐롯 딥클리어 리쿠트 오일 패드 반가롭고 귀찮게 느껴지는 클렌징을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어줄 제품. 순화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오일 패드에 클렌징 오일을 듬뿍 적셔 닦는다. 패드 한 장으로 잔존 색조 메이크업까지 단번에 지워질 만큼 세정력이 뛰어난 놀랐고, 이에 반해 피부 자극이 거의 없는 참에 감동했다. 울룩불룩한 패드 덕분에 각질 제거 효과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다. 150ml 6000 2만 원. 문의 02-573-7179_by 에디터 이혜미

나스 인스티튜트 이펙트 아이세도우 팔레트 색조 제품은 믿고 사용하는 나스의 가을 한정 아이템이다. 발색력, 지속력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데 피부에 편안함까지 선사한다. 시퍼와 글러제 제형으로 이류인 무려 12가지 컬러로 구성된 그날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1.4gX12 7만9천원대. 문의 02-6905-3747_by 에디터 이수이

메이크업 포어미 리쿠트 오일 패드 #402 울분, 볼륨을 얻어주고 모든 피부 톤에 잘 어울리는 최상의 색상을 담은 메이크업 포어미의 아신 립 클레틱. 립도 가장 살 쫄리는 캐주얼한 피부 톤의 에디터가 6개 반 이상 번으로 테스트를 시작했다. 곁 립은? 인성 레드 컬러가 그리 밋지 않은 곳에 갖춰지는 것. 2g 3만2천원대. 문의 080-514-8942_by 에디터 이수이

리쿠트 앤드 바디 워시 스웨덴의 혹독한 추위와 해풍, 2천 시간에서 영감을 받아 풍부한 보습과 진정 효과가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 립과 핸드크림을 사용해본 적이 있어 앤드 바디 워시도 믿음이 갔다. 거품이 부드럽고 무엇보다 향이 강하지 않아 마음에 든다. 감각적인 패키지도 욕심에 놓이게 할까 450ml 3만9천원대. 문의 02-6905-3385_by 에디터 장미윤

연직 지옥산 안티에이징 크림 거품 워터인 디스 칩처럼 보이고 탄력이 떨어진 듯한 피부 고민에 해결을 일으켜 사용하기 시작한 제품. 쫄쫄한 스킨케어 제품이 부드럽게 발려 피부에 한 겹 고풍한 듯 건강한 막을 생성해준다. 지옥산과 자외선 풍부한 영 양 성분 덕분에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차오르는 느낌. 50ml 13만원. 문의 1644-4490_by 에디터 이수이

소파트 레드 스프라즈 라브라는 0를 그대로 화하고 유익한 항을 빨간 보물에 담았다. 여섯 가지 최상급 로즈 에센스를 메인 향으로 희 혼합 듯 특별한 기미 다른 향 조의 정미력이 핀 정향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100ml 15만9천원대. 문의 080-990-8989_by 에디터 장미윤

룩시앙 이모르텔 다비안 아이비 30대 중년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스킨케어 제품을 정할 때 가장 애용적인 단어는 '항산화'. 프랑스 남부 연안에서 자라는 특별한 꽃 이모르텔은 피부에 젊음을 지켜주는 성분으로 알려진 민근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지녔다. 이를 주성분으로 한 편안한 텍스처의 아이 크림은 연한 피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며, 탄력을 개선해준다. 직접 바르나 눈에 은근한 볼륨감이 생기는 듯하다. 15ml 10만원. 문의 02-2054-0500_by 에디터 이혜미

르세라피에 가리베 누트리 인앤스 나리시 데이 크림 기쁨과 향이 마음에 취한 모 발을 지웠다. 매일 드라이 전후로 바르는 입스온 난 헤어 에센스도 아드나 아쉬웠던 것이 사실. 그런데 드디어 정제하고 싶은 아이템이 등장했다. 시아씨더와 오일 성분을 담아 적당히 리치한 포물러의 에센스 크림. 바르는 즉시 모발에 수분과 탄력이 생겨 확연히 차이를 느낄 수 있다. 100ml 3만3천원대. 문의 1899-4802_by 에디터 이혜미

글레드르 보네 볼륨이징 크림 수모질 진주알 1개 크기로 얇게 얼얼 전체에 퍼 발랐을 편인데 풍부한 유폴라지가 느껴지고 적당한 수분이 돌아 하루 종일 촉촉하다. 노화의 첫 징후인 탄력 감소를 개선해 탄탄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완성한다는 연구가 확인된다는. 50ml 4만2천원대.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장미윤

벌프 로얄 볼로 벌러 EDT 신선한 아이스 망고 야코드를 시작으로 살비 일무위즈와 파퓰라 브르로 아이자는 허브 노트가 짙은 어운을 낳는다. 마치 이두위진 밤에 도시를 가우는 우아하고 세련된 남성에게서 풍길 듯한 향. 강렬하게 벌어지는 시리한 블랙 보들 디자인도 매력적이다. 75ml 8만9천원. 문의 080-363-5454_by 에디터 이수이

라 메르 뉴 컨센트레이트 허부에 60cm 이상 자라는 해초를 발효시켜 바다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았다. 피부 장벽을 강화해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의 자연적 개선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라. 사용 10일 후 건조함과 따가움, 붉은 기 등이 완화되는 부드러운 경향을 했다. 뜨거운 여름 태양에 노출되나 차가운 겨울 스포츠 활동 후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한 진정 성분으로도 탁월하다. 50ml 6만2천원대. 문의 02-6971-3215_by 에디터 장미윤



SHOWROOM



FASHION



벨루티 갤러리이백화점 광고 매장 오픈 벨루티가 갤러리이백화점 광고 2층에 새로운 매장을 열었다. 대표적인 제품부터 디렉트 코스 반 아레의 시즌 컬렉션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슈즈, 가죽 제품, 액세서리, 의류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31-5174-7225

피어비나 필리피 2020 F/W 컬렉션 브라운 플린넬 재킷은 모직에 루렉스사를 다한 소재를 사용해 움직임 때 은은한 광택을 발한다. 스트림 벨트 허리 라인을 강조해 날씬해 보이도록 했으며 클로징 버튼에는 모빌의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여기에 자연스러운 드레이핑과 언밸런스한 라인이 매력적인 플란넬 스카트를 매치해 유행을 기뻐하는 스타일링에 도전해보자. 문의 02-6905-3626

콜롬비아 엘라 스파가 이폴로 컬렉션 새롭게 선보이는 이폴로 컬렉션은 캐주얼과 포멀을 넘나드는 백으로 웅장하고 기쁨 있는 아폴로 신전의 조형에서 영감을 디자인했다. 최고급 날로티스 악어가죽을 사용해 품격을 더했는데, 굽과 길이가 다른 가죽 스트랩 37개를 제공해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 가능하도록 했다. 문의 02-2230-1225

브리오니 2020 브랜드 앰배서더 브랜드 피트 선정 전설적인 배우 겸 영화 제작자 브래드 피트를 2020년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했다. 그는 최근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영화 《에드 아스트라》에서 주연과 제작을 맡아 다재능하고 영향력 있는 면모를 선보였다. 제7회 칸 영화제와 제76회 베니스 영화제를 포함한 레드 카펫 행사에서 브리오니를 선택해 브랜드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문의 02-3274-6483

조이그리이스 마고 사철 백 골드 브라스 침금장차와 깔끔한 스커트 세이프, 그리고 톱 핸들이 조화를 이루는 우아한 토트백, 마고 사철 백. 이탈리아 소가죽으로 제작해 견고하고 고급스럽다. 라이트 카키, 진저 브라운, 어스, 락 블루, 총 4가지 색상으로 즐길 수 있으며 다가오는 가을에 들기 좋은 스타일이다. 문의 080-202-2002



구찌 재키 1961 백 1961년 첫선을 보인 재키 백이 일레신드로 미켈레에 의해 재탄생했다. 미니엄, 스몰, 미디, 37인치 사이즈가 웹 디테일의 GG 수퍼플 캔버스, 블랙, 레드, 라임라, 라이트 핑크, 라이트 블루, 파인톤까지 다양한 컬러와 소재를 만났다. 문의 1577-1921

자향시 안티고나 소프트 핸드백 2020 F/W 시즌에 맞춘 컬러와 소재를 활용해 새롭게 탄생한 안티고나 소프트 컬렉션. 그라스 신화 여인의 이름을 따 이 백은 여유로운 수납공간 구성과 특유의 디자인으로 모든 스타일에 두루 어울린다. 스타일링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안티고나 소프트 백은 슬러 스트랩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크로스 보디 백으로 연출 가능하다. 문의 02-546-2790

에르메스 2020 F/W 컬렉션 액세서리 프레세 프레제네이션 캠페인은 혁신이라는 테마로 에르메스의 혁신적인 컬렉션을 선보인 이번 프레제네이션에서는 하우스 오브제를 창조적이고 자적인 방식으로 디자인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각자 무늬 화이트 보드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보여주고, 컬러를 입혀 액세서리가 완성되는 과정을 표현한 공간도 구성했다. 문의 02-542-6622

토즈 케이트 모카신 라운드 형식의 기하학적 메탈 장식인 케이트를 매치한 케이트 모카신. 메탈 부분은 아연 도금 처리해 시간이 흐를수록 세일이 느껴지는 오랜 감성을 더해준다. 세련된 테이퍼드 세이프도 깔끔한 라인을 자랑하며, 블랙과 브라운 컬러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38-6008

조이그리이스 마고 사철 백 골드 브라스 침금장차와 깔끔한 스커트 세이프, 그리고 톱 핸들이 조화를 이루는 우아한 토트백, 마고 사철 백. 이탈리아 소가죽으로 제작해 견고하고 고급스럽다. 라이트 카키, 진저 브라운, 어스, 락 블루, 총 4가지 색상으로 즐길 수 있으며 다가오는 가을에 들기 좋은 스타일이다. 문의 080-202-2002



부세론 라트레 골드 브라스 공교로 자리매김 화사한 화이트, 강렬한 레드, 딥 브라운에 이어 경쾌한 데님 블루 색상을 더한 코트르 컬렉션이 새롭게 등장했다. 핑크 골드, 옐로 골드, 다이아몬드와 밝고 새로운 블루 컬러 조합이 이롭다. 반지, 펜던트, 니크라스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213-2246

티파니 T 트루 와이드 링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영완한 사랑을 상징하는 티파니 T 트루 와이드 링은 브랜드의 시그니처 T 모티브를 그래픽적으로 표현했다. 일퍼넷 T가 체인 형태로 교차해 흡사 다이아몬드의 단면을 형성화한 듯한 메탈 소재로 마무리한 것이 특징이다. 매일 착용해도 질리지 않는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남녀노소에게 인기 높다. 문의 02-6250-8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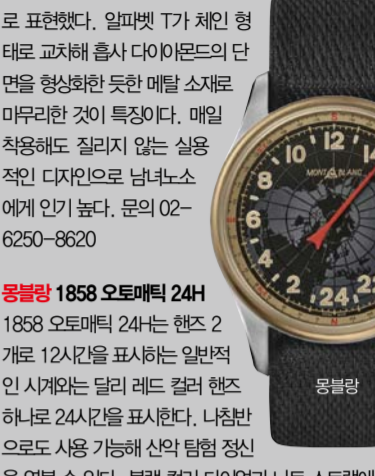


라프라리 스킨 케어 리쿠트 리프트 캐비아 추출물과 펩타이드를 결합한 캐비아 프리미어를 영양이 풍부한 캐비아 오일과 단백질을 풍부하게 결합한 캐비아 앰플루트와 결합한 스킨 케어 리쿠트 리프트. 코발트 블루와 실버의 조합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2개 색으로 구성된 각각 캐비아 비즈와 에디션을 담았다. 탄력 낚치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을 준다. 문의 02-6390-1115

데코르테 2020 AQ 포인트 메이크업 컬렉션 세계적인 디자이너 마르셀 빈더르스가 디자인한 다이아몬드 커빙 디자인 패키지와 마그네틱 뚜껑 케이스인 샹크이다. 다채로운 컬러와 텍스처에 함유한 AQ 스킨케어 성분이 피부를 자연스럽게 물들이며 입체감을 준다. 문의 080-022-3332

오디오캘리 골드문트 이폴로 스페셜 에디션 스위스 명품 오디오 브랜드 골드문트에서 이폴로가 탄생 25주년 기념 한정 시리즈를 이폴로 스페셜 에디션으로 새롭게 출시했다. 전례에 비해 더욱 강력한 저음역대 특징이며 시간 조정 작업을 골드문트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차라해 청각 피로 없이 자연음과 99% 일치하는 리얼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다. 음향 기술뿐 아니라 뉴욕 한화슬론에 전시될 정도로 훌륭한 예술적 면모도 돋보인다. 문의 02-516-9081

로디움 리샤리 선물 세트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좋은 로디움 선물 세트는 전통기의 조연과 협력을 통해 탄생했다. 고급 프랑스 레드 와인, 최고급 국산 수제 이람, 이탈리아 천연 차온의 폼발 치즈로 구성했는데, 특별 제작한 국산 샴페 파우치, 오렌지 컬러 박스, 딥 브라운 컬러 소량백에 담아 소중한 분에게 드리는 선물로 손색이 없다. 문의 070-8065-3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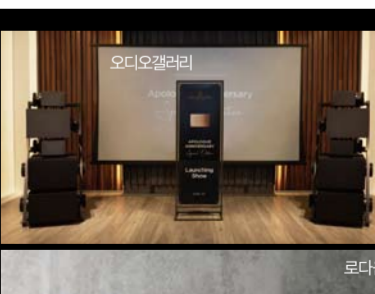
부세론 라트레 골드 브라스 공교로 자리매김 화사한 화이트, 강렬한 레드, 딥 브라운에 이어 경쾌한 데님 블루 색상을 더한 코트르 컬렉션이 새롭게 등장했다. 핑크 골드, 옐로 골드, 다이아몬드와 밝고 새로운 블루 컬러 조합이 이롭다. 반지, 펜던트, 니크라스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213-2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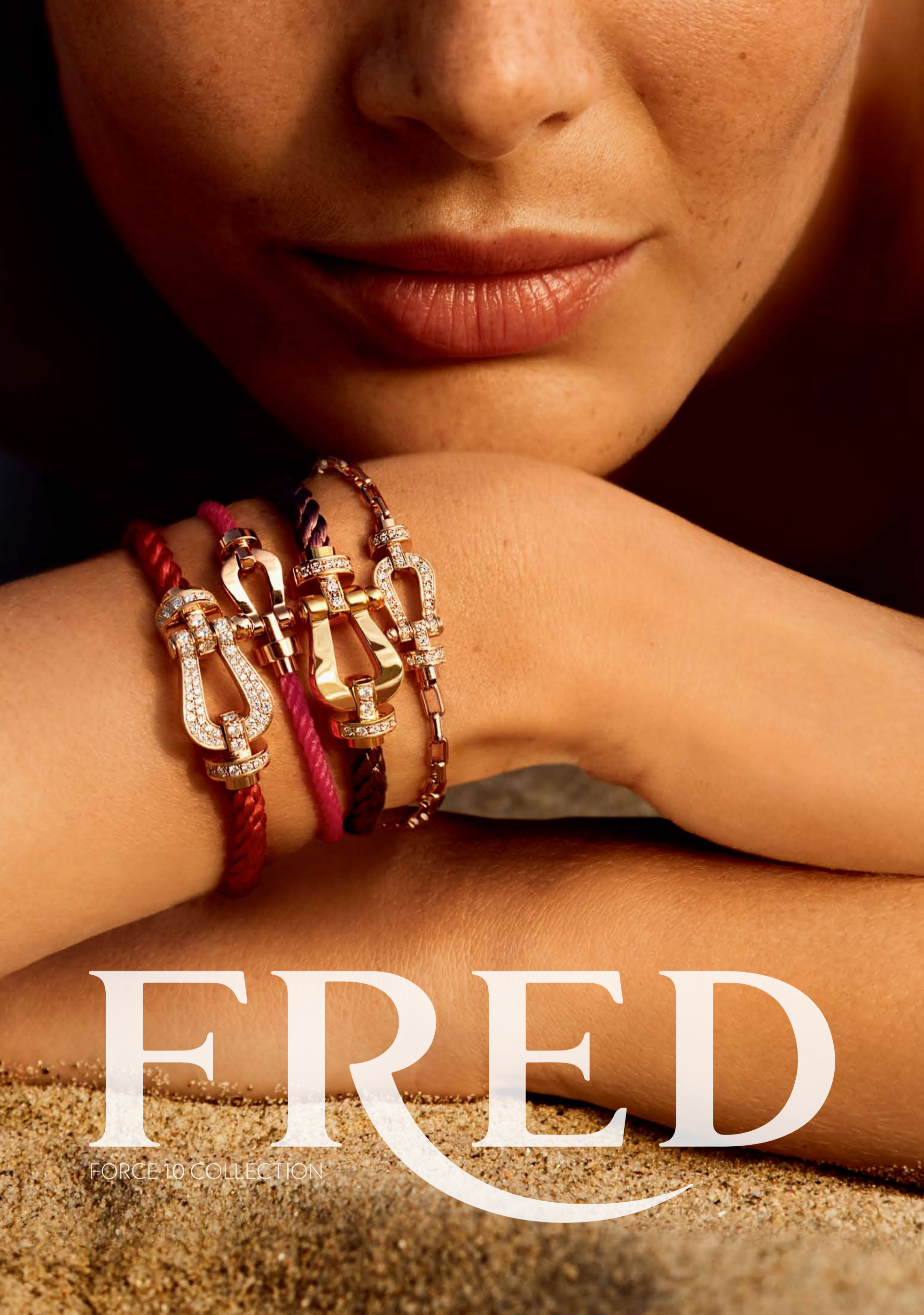
티파니 T 트루 와이드 링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영완한 사랑을 상징하는 티파니 T 트루 와이드 링은 브랜드의 시그니처 T 모티브를 그래픽적으로 표현했다. 일퍼넷 T가 체인 형태로 교차해 흡사 다이아몬드의 단면을 형성화한 듯한 메탈 소재로 마무리한 것이 특징이다. 매일 착용해도 질리지 않는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남녀노소에게 인기 높다. 문의 02-6250-8620



라프라리 스킨 케어 리쿠트 리프트 캐비아 추출물과 펩타이드를 결합한 캐비아 프리미어를 영양이 풍부한 캐비아 오일과 단백질을 풍부하게 결합한 캐비아 앰플루트와 결합한 스킨 케어 리쿠트 리프트. 코발트 블루와 실버의 조합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2개 색으로 구성된 각각 캐비아 비즈와 에디션을 담았다. 탄력 낚치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을 준다. 문의 02-6390-1115

데코르테 2020 AQ 포인트 메이크업 컬렉션 세계적인 디자이너 마르셀 빈더르스가 디자인한 다이아몬드 커빙 디자인 패키지와 마그네틱 뚜껑 케이스인 샹크이다. 다채로운 컬러와 텍스처에 함유한 AQ 스킨케어 성분이 피부를 자연스럽게 물들이며 입체감을 준다. 문의 080-022-3332





FRED

FORCE 10 COLLECTION